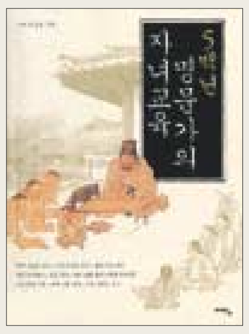
조상들에게 배우는 지혜로운 자식교육

전남 강진에 있는 다산초당. 다산 정약용은 10년동안 이곳에서 유배생활을 하면서도 편지를 통해 자녀교육을 할 정도로 두 아들의 교육에 많은 관심을 쏟았다. 그는 서신을 통해 풍부한 독서, 근검절약 등을 강조했다.



5백년 명문가의 자녀교육
최효찬 지음
예담 펴냄 | 1만3천원

자식교육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렵긴 매한가지다.

5백년을 이어오는 명문가들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자식을 교육했을까. <5백년 명문가의 자녀교육>은 인성 교육과 생활 교육을 중시했던 역사 속 위인들의 자녀 교육 방식을 통해 현대의 부모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지침들을 조목조목 소개하고 있다.

자녀교육의 해법을 위해 찾은 명문가는 10집. 풍산 류씨의 서애 류성룡, 고성 이씨의 석주 이상룡, 재령 이씨의 운악 이함, 양천 허씨의 소치 허련, 진성 이씨의 퇴계 이황, 해남 윤씨의 고산 윤선도, 나주 정씨의 다산 정약용, 한양 조씨의 호은 조전, 파평 윤씨의 명재 윤증, 그리고 경주 최씨인 경주 최부잣집이다.

이 책은 바로 이들의 지조와 자긍심을 대대로 지켜오며 자녀교육의 모범을 실천해온 대표 명문가들의 종가와 고택을 직접 방문, 그들의 생생한 증언과 모습들을 담아냈다. 특히 이 책이 밝히는 명문가들의 공통점은 자녀교육에 대한 열정과 헌신, 그리고 자식들에게 암묵적으로 영향을 끼친 아버지의 역할이다. 가족이란 틀 안에서 행해졌던 종가의 교육법과 교훈적인 내용들을 통해 부모들이 고민하는 문제들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던져주며, 더불어 자녀를 경쟁력 있는 인재로 키워내기 위한 해법을 알려준다.

먼저 서애 류성룡 종가를 들여다보자. 임진왜란 때 영의정 등 최고위직을 지낸 서애 류성룡(1542~1607)은 그 바쁜 와중에도 자녀들의 학문을 점검 독려하고 때론 따끔하게 질책한다.

서애는 두 아들에게 "학문은 정밀히 사색하고 자세히 질문하는 것을 중요시 하는데 언제나 깊이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없어 질문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물론 서애 스스로는 책 읽는 아버지의 전형을 모범적으로 먼저 보여준다. 그래서 일까. 지은이가 서애 종가에서 찾아낸 교육 비결은 "평생 책 읽는 아이로 만들라"는 것이다.

유림의 기둥인 퇴계 이황(1501~1570)은 될성부른 후학들과 자기 자식을 함께 교육시키며 인맥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데 무던히 애썼다. 또한 퇴계는 학문이 깊고 똑똑한 제자가 있으면 아들과 손자, 다른 제자들에게 소개해주고 함께 공부하게 했다. 똑똑한 아이나 공부에 뜻이 있는 아이끼리 더불어 공부하면 아이들은 더 경쟁심을 발휘해 학업에 열중하게 되고, 한결 뛰어난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백의정승으로 꼽히는 명재 윤증(1629~1724)은 자녀교육을 위해 벼슬길마저 포기했다. 백부 윤순거의 영향으로 일종의 사립학교 격인 '종학당'을 세워 나이와 학문 정도에 따라 후학들을 양성하기도 했다. 특히 종가 사랑채는 담장이 없었다

· 평생 책읽는 아이로 만들어라
· 더 나은 친구로 인맥 네트워크 짜줘라
· 어떤 위기 상황에도 자녀교육은 철저히
· 양보하며 밑지고 살게 하라

고 한다. 남들 앞에 부끄러울 것도 감출것도 없다는 의미였다.

자녀 교육으로 유명한 당대 학자들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이가 바로 다산 정약용(1762~1836)이다. 다산은 유배중에도 편지로써 자녀들을 독려했다.

다산은 자신의 유배로 인해 집안이 위기에 놓이자 자녀들에게 문명세계인 서울을 떠나지 말 것, 독서에 힘쓸 것, 재물을 나눠줄 것, 근검절약 할 것 등을 당부했다고 한다.

항상 남에게 '양보하며 밑지고 살라' 것을 가훈으로 정한 운악 이함(1554~1632)은 자녀들이 동네 아이들에게 맞고 들어오면 오히려 칭찬을 해주지만, 때리고 들어오면 크게 혼을 냈다고 한다. 이함의 17대손인 이용태 삼보컴퓨터 창업주는 '지고 밑지고 살라'는 이 집안 가훈덕에 인재들을 모아 창업할 수 있었다고 털어놨다.

어부사시사로 유명한 고산 윤선도(1587~1671)는 18년간 유배지에서 보낸 인물. 자신의 삶 때문인지 고산은 자식들에게 중앙정계에 진출하지 말라, 혹 벼슬에 오르더라도 그 자리에 연연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또한 고산은 시서화뿐만 아니라 유학과 경제 지리 의학 음악 등에도 능했다. 서재인 녹우당은 잡학도서관과 흡사해 조선후기 호남 학문의 요람이 됐다. 대대로 수집한 수많은 서적들은 후손들이 지성의 바다에 빠져들게 하는 일등 공신 역할을 했다.

경주 최부잣집은 최진립(1568~1636)에서 최준(1884~1970)까지 12대 3백년 동안 존경받는 부자였다. 일제치하에서는 백산상회를 설립해 상하이 임시정부 등 독립운동단체에 자금을 지원했던 최준은 3백년 된 대저택과 논밭 24만평, 860만원 등 전재산을 대구대학 계림대학(현 영남대) 설립기금으로 내놨다.

이런 집안의 가훈은 과연 어떤 무엇일까. 첫째,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말라. 둘째,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 셋째,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말라. 넷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다섯째, 주변 1백리 안에 굶어죽는 사람이 없게하라. 여섯째, 시집온 며느리들은 3년간 무명옷을 입어라 다.

상하이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1858~1932) 가문은 교육자들이 많은 집안이다. 망명중임에도 이상룡의 아들은 자기부인에게 논어와 맹자를 가르쳤고, 부인은 남편에게 맹자를 가르쳤다.

안동정착 5백여년 동안 석주 가문에서 과거로 벼슬한 사람은 1명이지만 석주 이후 독립운동으로 건국훈장 받은 이가 9명이다. 그 비결은 어떤 위기상황에서도 자녀교육만은 결코 소홀하지 말라였다. 또한 명가로서의 자긍심을 지키라는 것이다. 한 후손은 "우리 집안은 독립운동 하느라 요즘에도 넉넉하지 않다. 그렇지만 잘사는 친일파들에게 조금도 꿀릴 게 없다"는 말을 할 정도로 가문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전문가 서평

블루오션전략
르네 마보안 지음 | 김위찬 지음 |
강혜구 옮김 | 교보문고 펴냄 | 1만7천원

산업화 이래로, 기업들은 끊임없이 경쟁에 임해왔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시장점유율을 넓히기 위해 싸우고 있고, 차별화를 위해 투쟁하며,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머리를 싸맨다.

하지만 애초에 경쟁자가 없는 시장공간을 창출하면 어떨까? 이 책은 전략적인 성공을 거두기 위한 필수조건들에 대하여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한다.

지은이들은 100년 이상 지속된 30여 분야의 산업에서 150여 건의 전략적 이동(Strategic Move)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포드 자동차의 모델 T부터 애플의 iPod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가진 한 가지 공통점인, 전략적 이동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경쟁을 무의미하게 만들었고 블루 오션이라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경쟁없는 시장공간, 즉 블루 오션을 창조하였다는 것이다.

이 책이 주장하는 바는 바로 한정된 시장공간에서 서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상대방의 먹이를 빼앗아오는 제로섬 게임을 하지 말고, 블루 오션과 같은 새로운 공간으로 나가야 기업과 산업이 영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에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프레임워크와 방법이 담겨있다.

경쟁없는 시장을 창조하라

어찌보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블루 오션을 창출하기 위한 사례, 방법을 찾기란 쉽지않다. 책에서도 언급한바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경영 전략의 대가 마이클 포터가 제시한 아주 훌륭한 경쟁론이 제시하는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기업의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레드 오션(경쟁자가 있는 공간)에서 기업들은 오로지 현재 존재하는 시장에서 수요자를 찾는 데서만 성장을 국한시킨다. 그 대신, 그들은 시장 바깥에 있는 비고객들에게로 눈을 돌려야 한다. 그래서 블루 오션처럼 거대하고 무한한 새로운 시장공간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골프채 회사인 캘러웨이에서 도전적인 스포츠에 겁먹은 비골퍼들을 위해 새로운 블루오션을 열었다. 골프채의 헤드가 크게 디자인된 '빅버사'라는 골프용품에 대한 새로운 요구의 블루 오션을 창출한 것이다.

레드 오션에서는 고객들이 동종 산업 안에서 타 경쟁자들과의 사이에서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대해서만 질문한다. 그렇지만 블루오션을 창출한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의사결정하는데 산업간 경계를 넘어서까지 바라본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 이렇듯 블루오션 전략은 치밀한 방법론을 제시하며, 거대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게 해주는, 다음 세대를 위한 희망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제 블루 오션 전략은 비단 기업 경영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요즘 대선을 앞두고 일선 정치인들도 블루 오션을 배우겠다고 야단들인 모양이다. 그 뿐만이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블루오션을 응용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삶이 진부해 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김영인(KTF 전략정보팀장)

만불산 만불사
홈페이지 www.manbulsa.org

인터넷 주소창에 [주소(D) 만불사 ▼ 이동] 를 치시면 제 1, 2, 3회 산사음악회 동영상을 보실수 있으며, 제 4회 산사음악회 초대권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선음(線音)속에서 찾는 산사의 명상세계

8월 19일(음 7.15) 금요일 오후 7시에 개최되는 네 번째 산사음악회에서는 불자 여러분께 선음 속에서 산사의 선(禪)과 명상세계를 선사합니다.

◈ 제4회 달맞이 산사음악회 출연진 ◈

가수 심진 스님

가수 도일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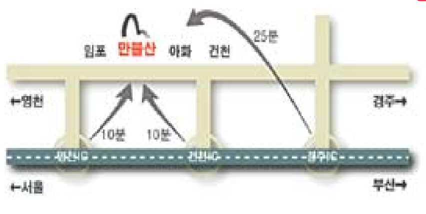
가수 범능 스님

인도전통음악 바르가브 미스트리

해금연주단 이현의 농

● 일 시 : 8월 19일(음 7.15) 금요일 오후 7시 ● 장 소 : 만불산 만불사 대웅전
● 입장료 : 대인 5천원 / 소인 3천원
(만불산 정기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은 입장료 무료입니다.)

● 찾아오시는 길



문의 : 영천 054) 335-0101
대구 053) 756-0101
서울 02) 522-0101
부산 051) 558-0101
마산 055) 251-0104
그외지역 1600-0101

〈경부고속도로 상행편〉
건천 I.C에서 4번국도 영천방면 10분 / 경주 I.C에서 4번국도 영천방면 25분

〈경부고속도로 하행편〉
영천 I.C에서 4번국도 경주방면 10분